

부산체육

톡톡



부산광역시체육회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APRIL 2021 VOL.14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노력의 땀방울

사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양궁팀 인터뷰

구·군체육회를 가다

따뜻한 소통과 화합으로

체육회의 미래를 말하다

동구체육회

학교체육 탐구생활

참여와 협동, 존중과 배려

뉴스포츠 옴니킨(Omnikin)! 킨볼

해연중학교 킨볼스포츠클럽

CONTENTS



노력의 땀방울 사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양궁팀

예리한 시선 너머 고요한 마음으로 쏘아 올리는 백발백중



구·군체육회를 가다 동구체육회

따뜻한 소통과 화합으로 체육회의 미래를 말하다



학교체육 탐구생활 해연중학교 킨볼스포츠클럽

참여와 협동, 존중과 배려 뉴스포츠 옴니킨(Omnikin)! 킨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한마음동호회

전통수련법을 넘어 세계적인 스포츠로



BSC 뉴스

근대5종 실업팀 지원 협약식 & 코로나19 선제검사 추진

노력의 땀방울

사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양궁팀

예리한 시선 너머 고요한 마음으로 쏘아 올리는 백발백중(百發百中)

“2014년 7월 사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양궁팀이 창단한 이후 4개월 만에 부산 대표로 출전한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수상했어요. 이승일, 김성훈, 장채환 세 선수가 함께하며 개인적인 연습뿐만 아니라 팀워크도 쌓아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다년간의 경험으로 선수들의 역량은 이미 충분했기에 신성근 감독은 2018년 취임한 이래로 안전과 분위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팀을 꾸려왔다.

“양궁은 다른 스포츠에 비해 인내심이 더 필요한 종목이에요. 활을 잘 쏘기 위해서는 중압감을 이겨내고 스스로 마음을 바로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전만이 아니라 단체전에서도 마찬가지죠.”

선수 개인을 비롯해 전국체육대회부터 한국 실업양궁연맹회장기양궁대회, 대한양궁협회 회장기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는 물론 전국 남·여양궁종합선수권대회 단체전까지 석권하며 양궁계에 이름을 알린 사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양궁팀. 그들의 메달 행진 비결에는 매일 같은 훈련과 연습도 빼놓을 수 없다. 자세는 물론 호흡만 조금 달라져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양궁의 특성상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직장운동경기부인 만큼 일단 당연히 사상 구청을 널리 알리고 부산을 빛내야겠죠.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로서 세계무대에서도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양궁)
2019. 10. 4. ~ 9.



따뜻한 소통과 화합으로 체육회의 미래를 말하다

구·군체육회를 가다 동구체육회



2016년 통합 이후 동구체육회는 사무국장 1명과 경기에어로빅, 탁구, 사격 선수 출신을 포함한 지도자 7명(일반 5명, 어르신 2명)으로 구성, 회원 수 총 3,416명으로 24개 종목과 111개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동구는 도시임에도 옛 마을의 정서와 모습을 간직한 곳입니다. 화합, 단결, 연대 등 전통적인 우리 정서가 살아 있지요. 체육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각 종목별 협의와 소통이 잘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해결되곤 합니다.”





황헌성 회장 TALK!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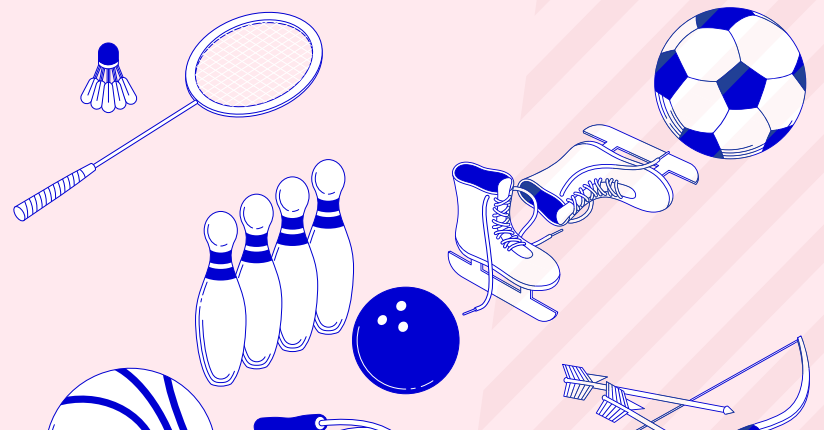
“올해는 타 체육회나 동호회와의 콜라보 등 다각도의 시도를 통해 체육회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님들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으로 서로 양보하고 격려하며 우리 슬로건의 표현처럼 동구 체육회와 함께 행복한 체육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VOL.3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 인구가 노령화되고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북항재개발과 함께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서며 동호인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체육회의 역할이 더 커져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법인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여 보다 내실 있는 체육회를 만드는 한편, 동구 체육인들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파크와 체육회관 건립의 기초도 다질 계획이다.

“민선체육회장 시대의 슬로건은 ‘행복한 체육, 구민과 함께!’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 바이러스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부터가 행복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2021년은 그 무엇보다 우리 동구 체육회 회원님들과 함께 더 행복한 체육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와 협동, 존중과 배려 뉴스포츠 옴니킨(Omnikin)! 킨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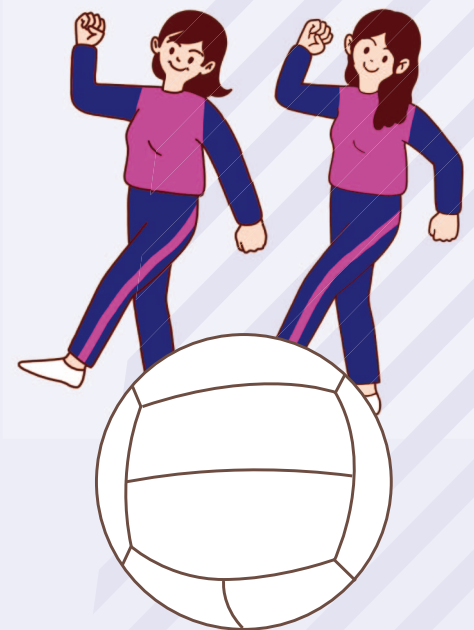
학교체육 탐구생활

해연중학교 킨볼스포츠클럽



1984년 캐나다 퀘벡주의 체육교사 마리오 뒤마가 창시한 뉴스포츠 킨볼 (KIN-BALL)은 세 팀이 함께 출전해 승부를 가리는 유일한 종목이다. 약자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고, 승자도 끝까지 장담할 수 없는 박빙의 레이스로 모두가 함께 하는 행복한 경기로도 불린다. 부산을 대표하는 킨볼의 명문, 해연중학교를 찾았다.

해연중학교에 킨볼스포츠클럽이 생긴 건 2014년으로, 뼈아픈 패배를 경험한 첫 대회부터 지금까지 원재인 교사가 지도하고 있다. 킨볼은 원재인 교사도 처음 접하는 뉴스포츠였지만 오기랄까, 승부욕이 발동했고 영상으로 보고 배우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서석근 교장선생님 TALK! TALK!

해연중학교는 공부든 운동이든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교육 철학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왔어요. 킨볼스포츠클럽 역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보면 기특해요.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재미, 돕고 양보하는 즐거움을 맛봤기에 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은 맘껏 꿈을 키우고 선생님을 비롯한 구성원들은 보람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VOL.3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킨볼대회 우승, 2018년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킨볼대회 여중부 3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상 경력을 낼 수 있었던 데에는 2015년부터 수행평가 종목으로 킨볼 수업을 시작, 점심시간과 방과 후 수업, 토요 스포츠클럽 수업도 병행하면서 심 없이 연습한 결과였다.

킨볼스포츠클럽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수빈 주장은 뛰어난 공격수로 리더십이 남다르고, 최예빈 부주장은 공 타격이 뛰어나고 유독 후배들을 잘 챙긴다. 두 학생은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해준 킨볼을 더 많은 이들이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전통수련법을 넘어 세계적인 스포츠로

함께하는 생활체육 한마음동호회



국학기공은 호흡, 명상, 뇌 기체조, 배꼽힐링 등 한민족 고유의 심신수련법을 현대인에게 맞게 체계화한 생활스포츠이다. 현재 공원과 관공서, 학교, 경로당, 복지시설 등 국내 5천여 개 20만여 명의 동호인들이 활동 중이며, 세계 각국이 참가해 국학기공을 뽐내는 대회가 열리는 세계적인 스포츠로 성장했다.

한마음동호회는 2006년 설립 이후 부산 곳곳에서 매일 아침 6시와 저녁 7시 두 차례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국학기공 수련을 하고 있다. 동호회원은 600여명 정도, 회원 중 최고령자는 92세에 달하며 최연소자가 43세로 평균연령이 약 67세이다. 회원들의 연령대가 있음에도 젊은이들 못지않은 열정으로 연습하고, 교류하고 있으며 모두가 국가의 스포츠7330 건강정책에 앞장서고 있다는 긍지가 있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BNK저축은행 근대5종 실업팀 지원 협약식

부산광역시체육회는 BNK저축은행과 지난 4월 7일 부산광역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BNK저축은행 근대5종 실업팀 후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BNK저축은행은 비인기 종목인 근대5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20년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 근대5종팀에 운영비와 장비, 훈련복 등 경기에 필요한 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선제검사 추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4월 2일 팀별 훈련과 대회 출전이 많은 부산 관내 선수단의 집단감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생활체육 지도로 접촉 횟수가 많은 구·군체육회 지도자의 지역감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 선수 및 지도자 202명과 16개 구·군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 112명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